

(1) 湿 度

空氣속의 습기의 정도를 말하며 絕對濕度와 相對濕度가 있다.

絕對濕度란 1 ㎡의 空氣中에 있는 수증기의 양을 그램數로 표시한 것이다.

한편 相對濕度란 공기중에 함유될 수 있는 수증기의 最大量(飽和水蒸氣量)과 실제로 함유되어 있는 水蒸氣量과의 比로 溫度에 따라 變化한다. 火災 특히 大火는 濕도가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 일어나기 쉽다는 것은 흔히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實效濕度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는데 과거 몇십일 동안의 상대습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나타내는 습도의 표시방법으로 板, 기둥, 가구 등 목재의 含水量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위 목재 등이 불붙기 쉽다는 것을 표시하는 습도라고 말할 수 있다. 出火 件數에는 습도가, 大火災에는 實效濕도가 좋은 척도가 된다. 일반적으로 日本에서는 실효습도가 60%이하가 되면 화재에 관한 경보가 발해지는 경우가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실효습도가 50%이하이거나 당일의 최소습도가 30%이하일때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다.

(2) 調理用 닥트 火災의 防護

調理用 닥트火災는 장기간에 걸쳐서 퇴적한 기름이나 먼지 등이 연소하는 것으로 煙突狀의 안에서 연소하기 때문에 연소속도가 극히 빠르고 연소력이 강하기 때문에 닥트가 赤熱된 상태가 된다. 부근에 가연물이 있으면 쉽게 착화하여 일반화재로 移行된다. 가연물이 없으면 닥트내의 연소만으로 그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화재일 경우는 천정속, 닥트스페이스(Duct Space)內를 조기에 점검하여 가연물의 유무를 확인하여 가연물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着火防止가 최대의 POINT가 된다.

각층에 조리실이 있는 대상물에 있어서는 닥트스페이스에 수용된 입상닥트에 대하여 각층에서 분기되어 이에 접속되어 있는 일이 많다. 이런 닥트는 방화 구획을 관통하는 부분에 방화담퍼가 설치되어 있으나 먼지나 기름이 부착되어 화재시 완전히 기능을 발휘하는 일이 적고, 아랫층에서 發生한 화재가 상층의 분기 닥트內까지 화염이 전파되어 생각지도 않은 층에서 연소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조기에 配管圖 등에 의해 건물전체의 닥트의 상황을 파악하여 점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닥트내의 화재를 소화하는 데는 排氣孔, 點檢口 등을 이용하여 닥트내에 注水하던가 관이 구부러져 물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있을 때는 필요한 곳을 파괴하여 전반적으로 물이 미칠 수 있도록 한다.